

연금리뷰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현황분석과 전망

차 례

■ 주요 경제 현안

-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현황분석과 전망
 - 자산운용의 폭 확대가 시급하다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 박 덕 배 전문연구위원 (3669-4009, dbpark@hri.co.kr)

□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현황분석과 전망

- 자산운용의 폭 확대가 시급하다

우리나라도 여타 선진국처럼 130 여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기업연금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지난 2005 년 12 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7 년 말 현재 적립금액 2 조 7,567 억원, 가입자 53.8 만 명이었지만, 2009 년 7 월 현재 적립금액 8 조 4,771 억원, 가입자 140.4 만 명으로 불과 1 년 반 만에 3~4 배 급증하고 있다.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개인퇴직계좌(IRA) 보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중 DB 형의 비중이 높다. 5 인 이상 상용근로자 중 DB 형이 64.76%, DC 형이 30.06%를 차지하고 있다. 확정기여형(DC)형 도입 사업장의 수가 많지만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확정급여형(DB) 도입 비중이 높다. 금융기관별 취급 비중은 은행이 60.3%로 절대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으로 생명보험이 20.0%, 증권 14.7%, 손해보험 5.0% 순이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나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극히 초기 단계 수준이지만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비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다양한 전환동기의 장점뿐만 아니라 2010 년까지 5 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가 의무화되고, 퇴직신탁, 퇴직보험이 2010 년까지만 판매되고 중단하게 되는 제도적 요인도 있다.

하지만 향후 국내 퇴직연금시장이 팽창될 경우 근로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현행 금융상품 운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퇴직연금의 85% 정도가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이며, 15% 정도가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나마 증권사의 경우 실적배당상품 비중이 67.8%로 높으나 대부분 은행권 금리수준과 비슷한 채권형 펀드이다. 여타국에 비해 매우 강도 높은 자산운용 규제는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 및 퇴직연금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이대로는 안정과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축적 수단으로 매우 미흡하다.

향후 퇴직연금의 도입 러쉬와 더불어 확정기여형(DC)이 빠르게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맞는 자산운용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미국의 확정기여형은 별다른 제약 없이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생명보험상품 등 다양하게 투자하면서 성장하여 현재 미국 퇴직금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퇴직연금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정부, 기업, 근로자,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 제약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은 기업연금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 확보하여야 한다. 근로자 역시 자신의 자기책임 하에 확정기여형 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금융지능(MQ)을 제고하고, 금융기관도 다양한 상품개발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인 만큼 자산운영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최근 빠른 성장세 보이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

○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 년 말 미국의 기업연금과 유사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퇴직연금 제도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맡긴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퇴직 후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확정급부형과 확정기여형(확정각출형) 으로 구분
 - 확정급부형(DB 형 Defined Benefit Plan)이란 사전에 결정된 연금지급 공식에 의해 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자신의 연금수급액이 미리 정해짐
 - 확정기여형(DC 형 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각출형)은 사전에 연금 각출액을 확정하는 반면, 연금 수급액은 각출금의 적립수준과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확정급부형 퇴직연금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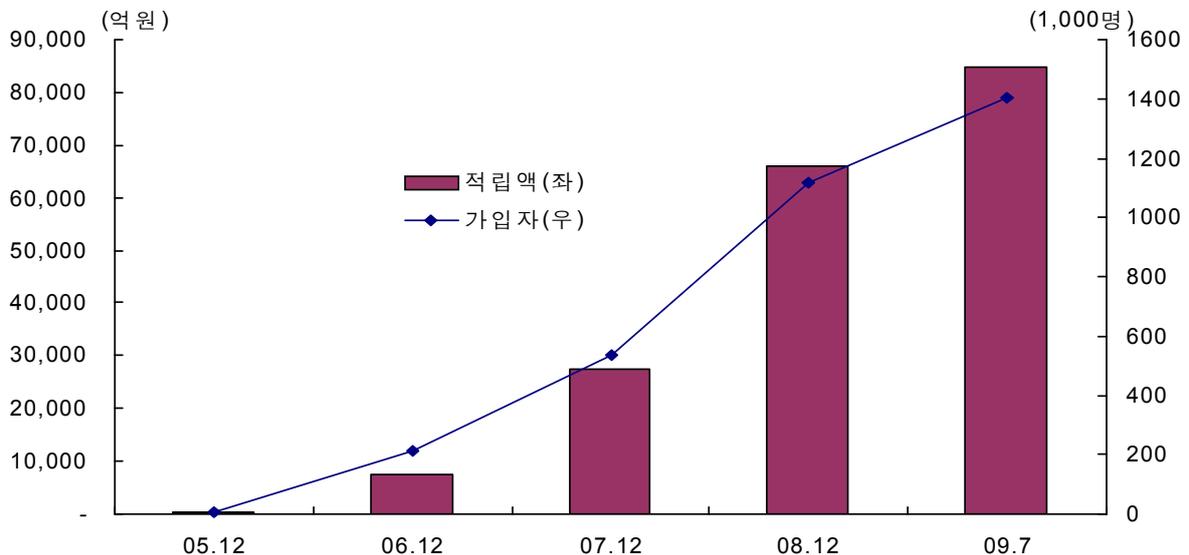
	확정급부형(DB)	확정기여형(DC)
각출금	변동 가능	확정
급부액	확정 (급여액의 일부)	실적에 연동
급부자	회사	회사와 노동자
수급보장	요구됨	불필요
물가, 이자율 변동 위험	회사 부담	종업원 부담
관리	회사	종업원 계정별 관리
이동가능성	복잡	용이
연금수리	복잡	없음
선호	장기근속자, 대기업 유리	단기근속자, 중소기업 유리

- 우리나라도 여타 선진국처럼 130 여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기업연금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지난 2005 년 12 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
 -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미흡함을 보완
 -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
- 한편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은 퇴직 일시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도 도입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하여 불입하고 세제혜택을 받으며 DC 형과 같이 근로자 책임과 권한 아래 운용하다가 55 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함
 - 한편 10 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가 원할 경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퇴직급여제도(IRA 특례, 기업형 IRA)를 운영

○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도입 직후 미미하다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도입 2 년이 지난 2007 년 말 현재 적립금액 2 조 7,567 억원, 가입자 53.8 만 명이었지만, 2009 년 7 월 현재 적립금액 8 조 4,771 억원, 가입자 140.4 만 명으로 불과 1 년 반 만에 3~4 배 급증
 - . 5 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18.41%인 총 1,403,759 명 가입(5 인 이상 상용근로자 7,626,022 명 (노동부 사업체 실태현황, 2007.12))
 - . 가입 사업장도 2007 년 말 30,882 개에서 2009 년 7 월말 현재 59,441 개로 약 2 배 증가(5 인 이상 사업장의 11.4%)

<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액 및 가입자 수 추이 >



자료 : 노동부 퇴직연금.

2.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현황 분석

○ **국내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DB 형 도입 비중이 높음**

- 개인퇴직계좌(IRA) 보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중 DB 형의 비중이 높음
 - . 5 인 이상 상용근로자 중 DB 형이 64.76%, DC 형이 30.06%를 차지
 - . IRA 특례의 비중은 4.64%, 개인형 IRA 는 0.54%로 극히 미미한 수준

< 국내 퇴직연금 구성 >

	합 계	DB 형	DC 형	IRA 특례	개인형 IRA
근로자수	1,403,759	909,150	421,968	65,123	7,518
(%)	(100)	(64.76)	(30.06)	(4.64)	(0.54)

자료 : 노동부 퇴직연금.

주 : DB 가입자 수의 경우, 복수계약 체결로 인한 중복가입자가 포함된 수치임.

- 비록 도입 사업장의 수에 있어서 확정기여형(DC)형이 많지만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확정급여형(DB)과 도입 비중이 높음
- . 확정기여형(DC) 도입 사업장의 비중이 41.24%로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장 비중 26.02% 보다 월등이 높는데, 이는 수가 많은 소규모사업장이 DC 형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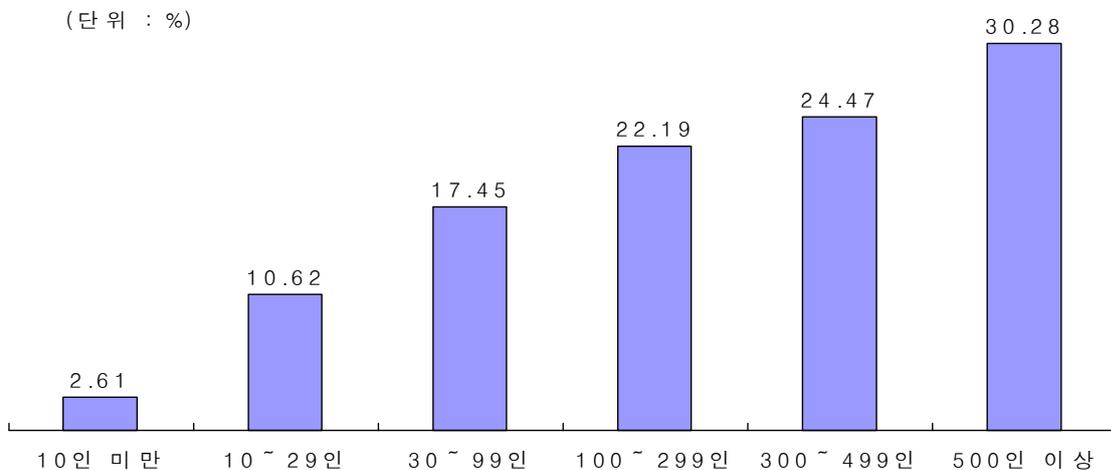
< 사업장별 도입 구성 추이 >

구 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DB & DC	IRA 특례
사업장수	15,384	24,389	646	18,715
(%)	(26.02)	(41.24)	(1.09)	(31.65)

자료 : 노동부 퇴직연금.

- . 대단위 사업장(500 인 이상)이 확정급여형(DB)을 선호하고, 500 인 미만의 중소형 사업장은 확정기여형(DC) 또는 IRA 특례가 주를 이룸
- . 500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도입 비중이 30.28%이며, 10 인 미만은 2.61%임(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분류 297 개('09)와 행정안전부 분류 지방공기업 149 개('08)을 합한 총 446 개소 중 80 개소가 도입되어 도입률은 17.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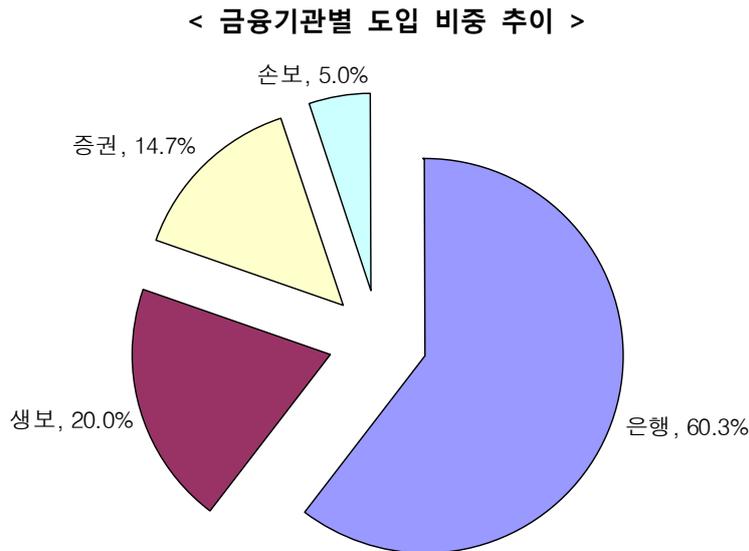
< 사업장 규모별 도입 비중 추이 >



자료 : 노동부 퇴직연금.

○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각 금융기관의 특성별로 DB 형 또는 DC 형을 강조하고 있음

- 금융기관별 취급 비중은 은행이 60.3%로 절대적으로 높음
 . 그 다음 생명보험이 20.0%, 증권 14.7%, 손해보험 5.0% 순임



자료 : 노동부 퇴직연금

○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각 금융기관의 특성별로 DB 형 또는 DC 형을 강조하고 있음

- 금융기관별 취급 비중은 은행이 60.3%로 절대적으로 높음
 . 그 다음 생명보험이 20.0%, 증권 14.7%, 손해보험 5.0% 순임
- 안전성을 강조하는 보험회사와 은행의 DB 형 비중이 높으며, 증권회사의 경우 DC 형의 비중이 DB 형 보다 높음
 - . 생명보험의 경우 DB 형이 81.7%, DC 형 13.4%이며, 손해보험의 경우 DB 형이 75.5%, DC 형 21.1%
 - . 은행의 경우 DB 형이 57.6%, DC 형 29.1%
 - . 증권의 경우 DB 형이 47.9%, DC 형 49.7%로 DC 형이 DB 형을 소폭 상회

- 특이할 만 한 것은 IRA 기업형의 경우 대부분 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IRA 개인형은 은행과 생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금융기관별 도입 비중 추이 >

	DB 형	DC 형	IRA 기업형	IRA 개인형
은행	57.9%	29.1%	6.4%	6.6%
생보	81.7%	13.4%	0.2%	4.8%
증권	47.9%	49.7%	0.1%	2.3%
손보	75.5%	21.1%	0.2%	3.2%

자료 : 노동부 퇴직연금.

3.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급팽창 전망과 시사점

1) 전망

-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나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극히 초기 단계 수준임**
 -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지난 2 년간 빠른 성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자의 상당수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
 - 2009 년 7 월말 현재 전체 5 인 이상 사업장의 11.4%만 퇴직연금에 가입
 - 우리와 같이 임의가입 형태를 띠고 있는 영국, 미국 등은 40% 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시현
 - 우리나라 GDP 대비 연기금(퇴직+개인) 자산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극히 낮은 3.8%에 불과 (2008 년 기준, 보험연구원 자료 참조)
 - 일본 4.4%, 미국 78.4%, 영국 79.1% 네델란드 122.5% 등
-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비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전환동기의 장점을 지님**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 입장에서 기존 퇴직금 해소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사관리 제도와 세금혜택에 큰 장점
 - 퇴직연금제도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부채를 기준으로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로 퇴직 연봉제, 성과주의 임금제도, 임금피크제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유연한 인사관리 제도에 적합

- 2010 연말 퇴직보험 폐지 이후에는 퇴직급여제도 중에서 사외적립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퇴직연금제도가 유일하게 됨으로써 절세를 통한 합리적인 기업경영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¹⁾

- 근로자 입장에서 다양한 장점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선호
 - 사외적립으로 인하여 퇴직금 체불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음²⁾
 -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금을 은퇴할 때까지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S)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보장이 가능
 - 소득공제 및 세금부과 이연 등 세금혜택 또한 상당한 것으로 평가³⁾

○ **뿐만 아니라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제도적 요인 등으로 2010년부터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제가 퇴직연금제로 전환이 거세질 것으로 보임**

- 201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가 의무화
 - 단, 사용자의 부담을 일반 사업장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
 - 2007년 6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297만 9천명으로 1인 이상 민간부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 약 1,100만 2천명의 27.1%에 이르고 있음
- 은행 및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퇴직신탁, 퇴직보험이 2010년까지만 판매되고 중단하게 됨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변경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

2) 시사점

○ **향후 국내 퇴직연금시장이 팽창될 경우 근로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현행 금융상품 운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 현재 퇴직연금의 85% 정도가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이며 15% 정도가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음
 -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주로 예적금, 금리확정형 보험, 금리연동형 보험, 국공채, 원리금 보장 ELS 등이며 DB형의 93.1%가 원리금보장형임

1) DC형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전액을, DB형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추계액의 한도 내에서 손비 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절감하여 이윤을 증대

2) 확정기여형의 경우 전액 사외 적립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전혀 떼일 염려가 없으며, 확정기여형도 비록 100% 전액 사외적립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퇴직부채의 6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되어 있어 퇴직금제도보다 근로자의 수급권이 많이 개선

3)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운용 중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모두 투자 재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후 소득이 증가

- 실적배당형 상품은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채권형펀드, 기타펀드, 실적배당형 보험 등으로 DB 형의 5.2%, DC 형의 32.0%가 실적배당형임
- 퇴직연금의 운용주체인 은행과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원리금을 보장하는 위험기피형 안정적인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은행 및 보험사의 경우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각각 76.7%, 83.4%이며, 증권사의 경우 실적배당상품 비중이 67.8%로 높으나 대부분 은행권 금리수준과 비슷한 채권형 펀드임
 - 따라서 현재의 수익률은 세금효과를 제외할 경우 은행의 정기예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임

< 원리금 보장형 >

	DB 형	DC 형	IRA 기업형	IRA 개인형
예적금	46.6	46.5	81.9	55.7
금리확정형 보험	33.2	5.4	1.0	10.0
금리연동형 보험	8.9	10.7	1.1	13.5
국공채	0.0	0.1	-	0.5
원리금보장 ELS	4.4	2.6	-	1.3
소계	93.1	65.3	84.0	81.0

자료 : 보험연구원 재인용.

< 실적 배당형 >

	DB 형	DC 형	IRA 기업형	IRA 개인형
주식형펀드	0.6	-	-	-
혼합형펀드	0.2	-	-	-
채권형펀드	3.9	28.4	14.8	6.3
기타펀드	0.4	0.4	0.0	0.0
실적배당형 보험	0.1	3.2	0.2	9.7
소계	5.2	32.0	15.0	16.0

자료 : 보험연구원 재인용.

- 현행 자산운용 규제는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 및 퇴직연금 활성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내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가 질적 규제(자율규제)보다 건전성제고 차원에서 양적규제 (Legal List Rule) 지향하면서 여타국에 비해서 매우 강화
 - 안정되면서도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축적 수단이 되기 어려움

<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예금
DB	30%	50%	제한 없음 (BBB- 이상)	주식형, 혼합형: 50% 채권형 : 제한 없음	금지	제한 없음
DC	금지	금지	제한 없음 (BBB- 이상)	주식형, 혼합형: 금지 채권형 : 제한 없음	금지	제한 없음

- 우리보다 퇴직연금이 훨씬 발달된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 규제가 완화
 - 영미 등 앵글로색슨 국가의 경우 선관주의에 입각한 질적규제로의 전환
 - 독일 등 대륙국가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양적규제를 견지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크게 완화

< 주요국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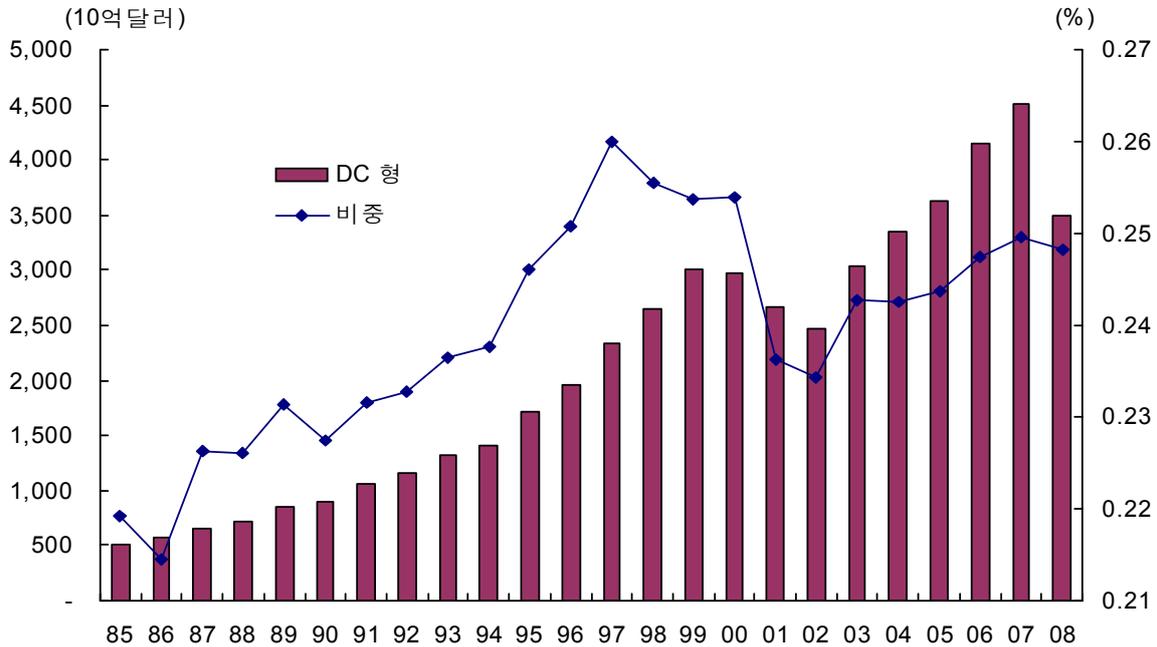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호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가입자에 대한 제한)
영국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고용주의 차입 및 보증금지
미국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고용주의 차입 및 보증금지
캐나다	30%	25%	제한 없음	30%	제한 없음
독일	30%	25%	50%	50%	50%
덴마크	40%	40%	제한 없음	40%	제한 없음

자료 : 보험연구원 자료 재인용.

- 특히 향후 퇴직연금의 도입 러쉬와 더불어 확정기여형(DC)이 빠르게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맞는 금융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
 - 미국의⁴ 경우 1980년 초반부터는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 현재 미국 퇴직금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높음
 - 미국의 확정기여형은 투자대상에 있어서도 별다른 제약 없이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생명보험상품 등 다양하게 투자 가능
 -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 비중이 높아지면 미국의 사례처럼 확정기여형 이 빠르게 늘어갈 것으로 판단

4) 주식시장이 가장 활기를 띠던 1999년 말 현재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자산총액에서 주식 비중 43.7%, 뮤추얼펀드비중 26.8%를 차지 (결국 뮤추얼펀드에 의해 투자된 주식까지를 고려하면 주식비중은 상당히 높음).

< 미국 DC 형 추이 >



자료 : ici.

주 : 비중은 총은퇴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DC 형의 비중.

- 앞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근로자,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 (정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 제약요건을 완화
- . (기업) 기업연금 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확보
- . (근로자) 자신의 자기책임 하에 확정기여형 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금융지능(MQ)을 제고
- . (금융기관) 다양한 상품개발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인 만큼 자산운영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임

박 덕 배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3669-4009)